

터키 반정부 시위사태 및 시사점

1. 시위사태 경과

□ 2013년 5월말, 공원 재개발에 반대하는 소규모 평화시위 시작

- 5월 26일, 터키 정부의 이스탄불 게지(Gezi)공원 재개발에 대한 반발로 50여 명의 환경보호주의자들이 묘목심기, 콘서트 등의 소규모 평화시위를 시작함.
- 터키 정부는 게지공원 부지에 군부대 청사를 재건할 계획임. 시위대 측은 게지공원이 이스탄불 도심에 남은 유일한 녹지이며, 동 군사시설이 실질적으로 대형쇼핑몰과 고급주택을 포함하는 상업시설이라는 점에서 재개발을 반대함.

□ 터키 경찰의 시위개입 소식이 전파되자 전국으로 시위 확산

- 5월 28일 터키경찰이 물대포, 최루탄 등을 동원하여 시위를 강경진압함. 이 소식이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퍼지자, 시위가 앙카라를 비롯해 터키 전역으로 확산됨.
- 시위 초반인 6월 4일 시위사태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하자, 아린크 부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시위 과잉진압에 대해 공식사과함. 그러나 이후에도 터키 정부는 병력을 동원한 기습진압과 강제해산 정책을 고수하였으며, 에르도안 총리는 시위대에 대한 무관용을 표명함.
 - 6월 12일, 에르도안 총리는 시위대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동시에 시위 강제해산을 병행하여 시위사태에 큰 진전이 없었음. 에르도안 총리는 이후 게지공원 재개발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음을 시사함.
 - 6월 15일 밤 또다시 무력동원으로 시위를 강제해산시키고, 6월 16일 하루에만 반정부 시위 가담자 400여명을 체포하는 등 강경진압 방침은 계속됨(6월 19일 기준 경찰의 강제 연행자: 900여명 추산).

- 6월 19일까지 반정부시위로 인한 사망자는 4명, 부상자 5,000여명으로 추산되며, 아린크 부총리는 시위대에 대한 군대동원 가능성을 언급하여 추가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시위대는 총파업과 침묵시위로 대처 중

- 6월 4일부터 터키 공공노조 24만여 명은 2일간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6월 17일에는 터키의 주요 노총인 혁명적노동조합총연맹(DISK)과 공공노조연맹(KESK)이 주도하여 24시간 총파업을 벌임.
- 6월 17일 탁심광장에서 행위예술가인 에르템 균듀즈의 일명 '두란 아담'¹⁾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가만히 서있는 침묵시위가 확산되고 있음.

<표> 터키 시위사태의 주요 경과

일 자	주요 내용
5월 26일	- 게지공원에서 소규모 평화시위 시작
28일	- 터키 경찰의 무력진압 소식이 SNS를 통해 전파
31일	- 터키 전역으로 시위 확산
6월 4일	- 첫 사망자 발생, 아린크 부총리의 공식사과 - 터키 공공노조 2일간 파업돌입
11일	- 경찰의 시위 강제해산 - 에르도안 총리는 시위대에 무관용원칙 천명
12일	- 에르도안 총리와 시위대 간 대화 - 게지공원 재개발에 대한 국민투표 여부 거론
16일	- 시위 강경진압 방침 지속으로 체포자 및 부상자수 급증 - 에르도안 총리의 지지자 집회
17일	- 터키 노동계 24시간 총파업 - 침묵시위 시작
19일	- 아린크 부총리, 시위대에 대한 군대동원 가능성 언급

1) 두란 아담(Duranadam) 은 '서있는 사람'이란 뜻의 터키어로, 탁심광장에서 8시간 동안 가만히 서 있기만 한 행위예술가 에르템 균듀즈 씨에게 붙여진 별명임.

□ 국제사회는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 자제와 대화 촉구

- 6월 4일, 미국 백악관은 터키 정부에 강경진압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시위대와 정부 양 측에 폭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함.
- 6월 17일,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터키 정부의 시위진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18일에는 반기문 UN사무총장 역시 성명을 통해 터키 정부와 시위대간의 충돌 장기화를 우려하며, 정부와 시위대 사이의 건설적인 대화를 강조함.

2. 시위사태의 발생배경

□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 간의 갈등

- 터키는 국민의 99%가 이슬람교이나 주변 중동국가들과 달리 헌법에 따른 세속주의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따르고 있음.
 - 이는 1923년 터키공화국 건국 당시 무스타파 케말이 제시한 건국이념(이른바 “6개의 화살”) 중 하나인 정교분리 원칙에 따른 것임.
- 그러나 집권당인 정의개발당과 에르도안 총리는 지난 10년간의 경제개발에 기인한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다시 이슬람주의로의 회귀를 노리고 있음.

<그림 1> 에르도안 총리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총리는 어린시절 이슬람계열학교에서 수학한 영향으로 이슬람주의의 사상적 기반이 확고한 편임.

1994~98년 이스탄불 시장 재임당시 상수도, 교통 및 대기오염 등 현실문제에 대한 해결로 지지도를 높임. 1996년 친이슬람계의 복지당 의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복지당이 세속주의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해산되자 투옥을 불사하며 강경히 투쟁하여 정치계의 주목을 받음.

이후 2002년 온건이슬람성향의 정의개발당을 창당하여 터키공화국 건국 당시부터 집권해온 “세속주의 엘리트동맹”을 대체할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함. 2003년 총리집권을 시작한 이후 2007년, 2011년에 연임에 성공함.

- 지난 5월 23일 터키 국회는 주류 판매 및 소비에 관한 규제 강화²⁾ 및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음.
- 터키 정부는 올해 5월말 건설이 시작된 보스포러스 제3대교를 “야부즈 술탄 셀림³⁾”으로 명명하였으며, 초등학교에서의 코란교육 확대 정책을 도입하는 등 생활 내에서 이슬람주의 강화노선을 취함.

□ 정부의 권위주의 정책에 대한 반발

- 터키 정부는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표현 금지하는 한편, 가구당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어 개인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시민들의 반발을 삼.
- 또, 에르도안 총리는 과거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집권기간 동안 수백 명의 언론인과 일부 대학생을 투옥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EIU의 민주화지수(Democracy Index)에 따르면, 2012년 터키의 민주화정도는 167개국 중 88위로 주변의 EU 가입희망국인 크로아티아(50위), 마케도니아(73위)보다 낮은 수준임.

3. 영향 및 시사점

□ 터키 경제의 취약성 노출

- 과거 터키는 잦은 유동성위기 발생으로 IMF의 차관을 지원받아 왔으나, 지난 10년간 정부의 친시장정책에 따라 견실한 경제성장을 지속함. 그 결과 2013년 5월에는 IMF차관을 모두 상환했고 경제펀더멘털이 비교적 안정되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을 부여받음.
- 그러나 이번 시위발생으로 터키 환율 및 증시는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어, 터키의 외부경제에 대한 취약성이 다시 노출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

2) 동 법안에 따라 심야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의 주류 소매판매 및 주류에 대한 일체의 광고행위가 금지됨.
 3) 보스포러스 제1대교는 터키 건국자의 이름을 딴 “아타튀르크”, 제2대교는 이스탄불을 정복한 메흐메트 2세의 이름을 따 “파티흐 술탄 메흐메트”로 불림. 보스포러스 제3대교는 오스만 제국의 9대 술탄인 셀림 1세의 이름을 따. 셀림 1세는 아나톨리아 동부와 시리아, 이집트 등을 정복하였으나, 형제를 비롯하여 자신에게 반발하는 자를 모두 학살한 것으로 악명 높아 후세에 야부즈(냉혹한/명철한)란 칭호를 얻음.

<그림 2> 터키 주가지수 및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 지난해 6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 터키의 주가지수(Istanbul Stock Exchange National 100 Index)는 시위 발생 5일째인 6월 3일에만 10%하락하는 등 과거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불안한 양상을 보임. 6월 18일 종가기준 터키의 주가지수는 77,740으로 2013년 최고치(5월 22일 93,179)에 비해 약 20% 하락함.
- 환율방어를 위해 터키 정부는 6월 12일 5천만 달러를 투입하였으나, 6월 18일 미달러 대비 리라화 가치는 지난 18개월 내 최저수준인 1.88을 기록함.
- 시위 확산으로 인한 불안감이 계속될 경우 터키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터키 정국불안의 단초 가능성 잠재

- 주변 중동·북아프리카 국가들은 2011년 반정부 시위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끈 이른바 아랍의 봄을 경험하였으며, 지난 6월 14일 이란에서도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음. 이에 터키에서도 반정부 시위로 인해 장기집권 중인 에르도안 총리가 교체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음.
- 터키 최초로 3선에 성공한 에르도안 총리는 재집권이 불가하자 헌법개정을 통해 직선제를 도입하였으며, 201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힌 바 있음.

- 2011년 총선 당시 에르도안 총리의 정의개발당(AKP)은 49%를 득표해 에르도안 총리가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아 옴.
- 그러나 반정부시위가 지속되며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에르도안 총리에 대한 지지도 하락이 우려되고 있음.
- 공화인민당(CHP)과 극우파인 민족주의행동당(MHP)를 비롯해, 터키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학자이자 교육운동가인 Fethullah Gulen도 현 압둘라 굴 대통령을 지지함에 따라, 향후 대중의 힘을 받는 굴 대통령과 이슬람세력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에르도안 총리 간의 갈등관계가 표출될 것으로 예상됨.

조사역 유나영(☎ 02-3779-5708)
E-mail: smilenayoung@koreaexim.go.kr